

제2회  
지식재산 금융포럼

2019.11.28(목) 09:00부터 보도 가능  
서울 63컨벤션센터 4층 라벤더홀

---

# 금융위원장 축사

---

2019. 11. 28.

## 금 융 위 원 회

※ 본 원고는 보도를 위한 참고용으로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은성수 입니다.

제2회 지식재산 금융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4월에 열린 제1회 지식재산 금융포럼은  
금융권과 산업계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각자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IP) 금융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제2회 지식재산 금융포럼은  
금융권과 산업계가 보다 깊어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걸어 나가야 할 길을  
탐색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자리입니다.

지난 4월에 이어 이번에도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박원주 특허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식재산이 금융과 연결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계시는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님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님  
그리고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은행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2. 지식재산의 중요성 : 기술경쟁의 시대

내빈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한 국가가 지식재산을  
어떻게 보호하고, 얼마나 활용하는지에 따라  
그 국가의 힘(國力)이 결정되었습니다.

18세기 후반

영국이 '세계의 공장'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근대적 특허제도를 기반으로  
증기기관이 산업 곳곳에 활용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미국이 글로벌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밑바탕에는  
레이건 정부의 '강한 특허\*(Pro-Patent)' 전략이 토대가 되어  
컴퓨터와 같은 신기술을 선점하였기 때문입니다.

\* 특허청의 위상 강화, 소프트웨어 등 특허보호 대상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국의 수입품에 대한 보복 조치 등 추진

지식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은  
4차 산업혁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있는 지금,  
더욱 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에서는

혁신의 보고(寶庫), 실리콘밸리에서 탄생한  
구글, 테슬라 등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래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제조 2025 혁신전략(2015년)’을 마련하여  
4차 산업혁명 분야 등에 대한  
특허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4차 산업혁명 특허축적을 주 목표(매출 1억위안당 1.1건)로 ‘제조 2025’ 추진

신속한 핵심 지식재산의 선점이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지식재산 창출과 확산 역량을  
점점하고, 보완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3. 지식재산 금융의 중요성 : ‘창출’과 ‘확산’의 원동력

그간 우리는 제조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R&D 투자\*를 지속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5위권의 특허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 국가연구개발비(억달러, '17) : (1) 美 4,837 (2) 中 4,427 (3) 日 1,551... (韓) 843

\*\* 국제특허 점유율(% , '15~'19) : (1) 美 25.0 (2) 日 20.3 (3) 中 16.4... (韓) 6.6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분야에서의 지식재산 창출\*과 확산\*\* 역량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저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경쟁력 지수('19) : 美 100, 日 67.5, 中 61.5 韓 42.1

\*\* 특허 사업화 성과(대학·공공연구의 계약건당 기술이전수입, 백만원) : 美 445, 韓 22

이러한 의미에서, 지식재산 금융은  
혁신적인 지식재산의 창출과 확산을 위한 원동력입니다.

금융위와 특허청은 지난해 12월부터,  
혁신적인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창출된 지식재산이 구체적인 사업화로 이어지기 위한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수한 지식재산을 보유한 혁신기업에게  
4년간('19~'22년) 5,000억원 수준\*의  
모험자본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성장사다리펀드 2,000억원, 모태펀드 500억원의 출자를 바탕으로 5,000억원  
규모의 IP펀드 조성

둘째, 우수한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업이  
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은행권은 5,7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셋째, 민간 평가기관을 금융권 중심으로 확대\*하여  
은행권의 자체적인 지식재산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 (현재) 산은, 신·기보, 나이스, 이크레더블 → (~'22) 전체 시중은행 등

특허청은 지식재산 담보 대출의 부실시,  
은행권이 이를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회수지원 기구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도 지식재산권 이외의 기계, 재고자산 등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를 '20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식재산 뿐만 아니라 기계, 재고자산 등에 대한  
회수시장이 조성되면,  
동산금융은 크게 활성화되어  
은행권의 새로운 여신관행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4. 맺음말 : 지식재산과 '혁신금융'의 연계

내빈 여러분

금융이 기술과 아이디어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줄 때,  
기업과 금융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혁신금융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여신시스템을  
기업의 모든 자산과 기술력, 영업력 등을 종합하여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혁신금융'(19.3월)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동산담보법 개정을 통해  
일괄담보제도 도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일괄담보제도\*가 도입되면  
지식재산권과 기계·설비 등 동산자산이  
포괄적으로 편리하게 담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업이 보유한 기계, 재고, 채권,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을 일괄하여  
평가-취득-처분할 수 있는 제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술평가와 신용평가의 일원화를 추진하여  
기업의 혁신적인 지식재산이 신용등급 상승으로 이어져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산금융 회수지원기구의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중은행 실무자가  
동산금융 대출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에 있어서 제재 등으로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적극적인 면책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식재산 금융포럼’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지방은행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식재산 금융이 각 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지역의 중소·벤처기업들도  
이러한 혁신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